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78. 포도를 거두는 장면

2014. 06. 29.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계14:17절부터 살필 시간입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4:17~20]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달았고 일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에 대한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곡식으로 추수되면 참 복인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포도처럼 되면 안 되겠지요? 이제 17절부터 말씀하시지요.

답: 예,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이 천사는 14절 이후에 나타나는 둘째 천사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장면으로 보면 곡식을 거두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포도를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시지 않고 천사를 시켜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리한 낫을 들고 포도를 거두는 자는 다른 천사 두 번째로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구름 위에 금 면류관을 쓴 분은 아니지요. 여기 기록된 사실로 미루어 생각하면 심판의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하시지 않고 천사들에게 맡기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셋째 천사가 또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나온 둘째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할 때 둘째 천사가 낫을 휘두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심판을 집행하는데 형벌은 천사들을 시키시는 것 같네요.

2. 정말 여기 기록한 대로라면 그렇군요. 그런데 첫 번째 천사부터 세 번째 천사까지 모두 성전에서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곡식을 거두라고 전달한 천사도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사는 곡식이 익었으니 거두라고 했는데, 익었다는 말은 “크세라이노”인데요 말랐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익을 곡식이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서 익을 곡식은 다 익었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을 나타내는데 그 시기가 끝나는 이유를 표현하는 낱말이기도 하더군요.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은

심판을 통하여 이제 곡식을 거둘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다는 선고가 낮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성소정결봉사와 관련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세 천사가 다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심판은 지성소봉사의 성질입니다. 지성소봉사는 또한 성소정결봉사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성소정결봉사와, 또는 심판하는 일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그 심판을 집행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은혜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온다는 말은 성전봉사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인데, 15장으로 넘어가면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3.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오는 것이 성소봉사가 끝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군요. 그러면 이제는 속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더 이상 봉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답: 여기 기록한 사실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차고 심판 집행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계15: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구절은 15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내용은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고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행하는 속죄 봉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된 것을 곡식이 익었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났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말랐다는 뜻입니다.

4.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그렇게 어떤 것을 맡아 주관하도록 임무가 분담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 성경에 기록된 사실 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일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하물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받아들여야 하지요. 계시록에는 보면 물을 맡은 천사도 있고 여기서는 불을 맡은 천사도 있네요. 16장 5절에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고, 여기는 불을 맡은 천사가 있습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8:3~5에 나타난 천사와 동일한 천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8:3~5]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천사가 금향로로 많은 향을 받아 가는데, 제단이라는 말이 번제단을 뜻하는 말인 “뒤시아스테리온”입니다. 옛날 성소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사용할 불을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

늘에서 보낸 그 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번제단에 보낸 그 불을 사용했습니다. 분향하는 불도 이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번제단의 불을 받아서 분향단으로 가져와서 향을 살랐다는 뜻인데, 참 의미가 깊네요. 속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번제단의 불을 주관하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속죄를 위하여 불태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5에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장면이 나오는데, 14:18의 장면을 미리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5. 천사가 불을 맡았는지, 물을 맡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는데 제가 질문을 했네요.(궁금한 것은 짚고 가는 것도 괜찮지요.) 그런데 왜 악인들의 심판을 포도송이를 밟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답: 예, 곡식 이야기를 할 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요엘서의 예언을 반영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가 이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가 계시록 1:5,6을 말씀드릴 때 그것은 출애굽기 19:4~6의 내용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봉사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엘 3:13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라는 예언이 계14:14~20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요엘서의 이 기록에 악인들의 심판을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표현했거든요. 계시록은 이 예언의 성취를 가르쳐주면서 요엘서의 기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에서 붉은즙이 나오는 것이 심판으로 살육당하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하기에 알맞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크세라이노”를 썼고 그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다른 단어이군요. “아크마조”입니다. 이것은 절정에 이르렀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악이 더 이상 가득 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결된 대로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6. 예, 구약성경에서 악인의 심판과 집행을 포도를 거두어 즙 틀에 넣고 밟는 것으로 표상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곡식을 거둘 때에는 낫을 들고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도를 거둘 때에는 그런 기간이 없습니까?

답: 글썬요? 이미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포도를 거두는 데는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첫째 단계는 포도를 거두는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포도즙 틀에 넣고 밟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첫째 단계에 대하여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라지 비유에서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한 번 볼까요?

[마13:41,42]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갚이 있으

리라.

이 말씀에도 거두어내는 것과 불에 던지는 두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30절에 좀 더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13: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에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는 일이 있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것은 이와 같이 단으로 묶는 것과 같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불사르도록 하는데, 포도도 거둔 후에 즈름 틀에 넣어 밟습니다. 이 단계가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두는 것은 심판으로 그들의 악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선고하는 단계이고 즈름 틀에 넣어 밟는 것은 그 결정을 집행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8장에는 절정에 이른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이 죄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표현이지요. 14:18~20의 표현은 15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재앙의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상태로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7. 그것이 두 단계라면 마태복음 13장의 표현을 보면 가라지를 거두는 것이 알곡을 거두는 것보다 먼저 있다고 하셨는데, 종말에 실제로 악인들을 먼저 거두어내는 것입니까?

답: 그런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는 먼저 거둔다고 하셨는데 설명하실 때에는 순서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마13:41,42) 그런데 불에 던져 넣는 것은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의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것보다 먼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건의 순서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것처럼 계14:18~20도 최종적으로 불에 던져 넣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거두는 것은 의인들이 구원받을 때에 그들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포도즈 틀에 넣는 것은 불 못에 던져질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 13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순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시록의 이 표현은 마지막 심판과 선고와 집행을 압축해서 말한 것입니다. 즉 아주 고도의 압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한 눈에 그 진행 순서를 다 파악할 수 없고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최후의 심판과 집행의 진행에 의하여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포도즈 틀을 밟을 때에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고 그 말굴레까지 닿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답: 조금 전에 포도를 악인에 비유한 것은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포도가 악인을 가리키는데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또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포도나무라고도 하셨지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렇게 포도를 악인을 표현한 것은 요엘서

에 기록된 예언과 관련하여 심판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요엘의 예언이 이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는 의인을 나타내지만 포도즙 틀에 넣어 포도를 밟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악인의 심판에 해당되는 표현을 한 것 같고 죄를 처리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을 사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사야 63:1~6에도 죄를 처리하는 상징으로 포도즙 틀을 밟는 모습을 사용하였습니다.

[사63:1~6]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2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며 3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5 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6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을 심판과 형벌의 상징으로 표현했지요. 포도즙 색깔이 붉어서 피를 상징하기에 알맞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했지요.

9. 그 거둔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온 말이 아닙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과 관계가 있습니까?

답: 당연히 그렇지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하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첫 부분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유향과 불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이 어떻든지 결론은 동일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충성한 사람들은 알곡으로 거두어지고 그것을 거절한 자들은 악이 절정에 이른 포도로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힌다는 것인데,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표현은 15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일곱 대접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인데, 일곱 대접은 심판의 결과를 이 죄의 세상 환경에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일곱 대접의 일곱 재앙으로 악인들이 형벌에 들어갈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또 마지막 둘째 사망에 대한 것도 함께 압축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죄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포도주 틀도 성 밖에서 밟습니다. 죄가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 13장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성 밖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히13:11,12]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옛날 성소봉사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특히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린 희생의 육체를 영문 밖

에서 불사른 것은 구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나타내고, 또 죄를 온 우주에서 영원히 없애기 위하여 죄와 죄에 속한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표상했는데 이유는 악인을 익은 포도로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엘서의 예언과 관련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19:11~16]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장의 이 구절은 14장 14~20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광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림하실 때 있을 사건과 아울러 최종적 결과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악이 절정에 이른 다 익은 포도로 비유된 악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고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데, 잘 익은 곡식들로 비유된 의인들의 상태와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이 두 무리는 거의 같이 대비되어 계시됩니다. 마태 13장의 가라지 비유도 그랬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비교해서 살필 수 있도록 같은 자리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바른 판단으로 진리를 회복하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잘 익은 곡식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10.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대로 굴복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쉽지는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지고, 그 깊이가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답: 예, 악인들이 포도주 틀에서 짓밟힐 때 흘린 피가 엄청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심판과 관련하여 악인의 결국을 표현하는 과장법적 표현을 빌려 쓴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흔히 우리가 엄청난 살육에 대하여 표현할 때 시산혈해라고 하지요, 즉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뤘다는 말이지요. 과장법인데 유대인들도 이런 과장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학형태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인데 이것도 상징적 표현입니다. 계시록은 거의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예언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숫자도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숫자들은 더욱 상징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수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3은 하나님 수, 4는 세상 수, 하나님 수 플러스 세상 수 7은 완전수, 하나님 수 곱하기 세상 수 12는 선택 수라는 것을 공부했지요. 4가 세상 수라는 것을 알면 1600 스타디온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는 것은 쉽습니다.

16은 4x4입니다. 거기에 100을 곱한 것입니다. 세상 수를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만하다는 것을 표상하는 10의 제곱입니다. 심판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미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에 속한 존재들은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인간 역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역사적 사건을 계시한 것은 14장 20이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장부터는 모두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이 끝나고 그 판결을 따라 이 세상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하면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3장과 14장이 함께 진행되는 역사적 시기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열심히 이 기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하는 것도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암중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지도를 받아 사태를 올바르게 보고 깨달아서 창조주와 부활의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알곡으로서 성도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믿음으로 살아야하겠습니다. 애청자들이나 우리가 다 일일에 매진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시간이네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대로 깨닫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별해야 할 이 시대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